

중국측 전문가와의 정책 협의회 참석

- 이문형 선임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센터)

□ 출장 개요

1. 출장자 : 이문형 선임연구위원
2. 출장기간 : 2012년 7월 23일 ~ 7월 28일
3. 출장지 : 중국 정저우, 창사, 우한, 상하이
4. 출장목적:
 - 경제인문사회협동과제 “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”(주관 기관 산업연구원) 수행을 위한 현지조사 및 중국측 전문가와의 정책 협의회 참석
 - 현지 자료 구입

5. 출장일정

월일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업무수행내용	접촉예정인물 (직책포함)
7월23일(월)	인천공항	정저우공항	-허난성 정저우시	-인천 출발	
7월24일(화)	정저우	정저우	-KOTRA 정저우무역관	-한중 정책협의회 참석	-정저우 현지 전문가
7월25일(수)	정저우공항	창사공항	-후난성 창사시	-정저우 출발 -창사 도착	
7월26일(목)	창사	창사	-KOIRA 창사무역관	-한중 정책협의회 참석	-창사 현지 전문가
7월27일(금)	창사역	우한역	-KOIRA 우한무역관	-창사 출발, 우한 도착 -한중 정책협의회 참석	-우한 현지 전문가
7월28일(토)	우한공항	인천		-우한 출발 -인천 도착 (김천규)	

6. 정저우 한·중 정책협의회

- 일시 : 2012. 7. 24(화). 15:30 ~ 20:30
- 장소 :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
- 발표자 : 스창(史强) 허난성현대물류연구원 원장
 차오광후이(乔光辉) 허난공업대학교 부교수
- 토론자 : 왕샤우둥(王晓东) 중국민생은행 부총경리
- 참석자 : 이문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 김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
 김 흠 국토연구원 연구원
 서종원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
 정영수 KOTRA 정저우관장 등

□ 토론주제

- 중부 허난성 경제발전의 위상과 발전정책
- 한중 물류의 협력 및 발전
- 금융업 관점에서 본 허난성진출 한국기업의 문제점

□ 주요 논의내용

1) 중부 허난성 경제발전의 위상과 발전정책

(1) 12·5기간에 중앙정부의 허난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

- 세금반환정책
 - 집적구와 신구에 대하여 세금의 기준치를 정하고,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액은 전액 반환

(2) 허난성의 대외무역 정책

- 선진기술의 도입 장려
- 중요장비의 수입 장려
- 중점업종 발전 장려
- 자원형 제품, 원소재의 수입 장려

(3) 한국 기업의 허난성 진출 현황

- 2010년까지 허난성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총 53개로 총투자액이 8천만 달러인데 중국전역의 323억8천달러의 0.24%에 불과
- 허난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주로 자동차(현대, 기아), 화장품, 식품, 음식점, 전자제품회사임

(4) 한국 기업의 對허난성 투자의 문제점

- 허난성 현지의 문제점
 - 허난성의 저개발 요소
 - 허난성 산업구조의 조정

- 위엔화 환율의 상승
 - 현지 인건비의 상승
 - 일부 혜택정책이 취소됨
 -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
- 한국기업의 문제점
 - 허난성 진출기업의 관리방식의 제약 : 현지인의 경영간부로의 활용도 빈약
 - 원자재의 현지화 비중 저하
 - 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저하
 - 기업 자체의 유통경로 고집

2) 허난성과의 한·중물류 협력 및 발전

(1) 허난성 물류발전현황

- 허난성입지우위를 기반으로 한 종합교통운송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됨
 - 징광(京广), 룡하이(陇海), 자오리우(焦柳), 징지우(京九), 닝시(宁西) 등 간선철도 등이 통과하고, 련윈강(连云港)-네덜란드 로테르담간 유라시아횡단철도를 개통
- 허난성 교통운송과 물류업의 빠른 발전 : 사회전체총물류비용이 GDP의 16.5%
- 물류기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 : 대소물류기업이 69만개, 화물운송대리점 1,077개
- 저온유통물류, 건재물류, 의약품물류, 가전물류, 자동차물류, 방직의류물류, 우편물류 등 전문물류가 점차 형성되고 있으며, 제3자물류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임

(2) 허난성 물류업의 문제점

- 물류기업이 영세하고 저가이며 산재되어 있어 경쟁력이 결여
- 교통운송과 물류업 발전이 불균등
- 물류관리비용이 과도하게 높음
- 물류기업의 경영수준이 낮고, 서비스도 규범화되어 있지 않음
- 물류기반시설이 빈약하고, 물류자원배치가 합리적이지 못함

- 지방에서의 봉쇄 및 독점이 존재하여 물류경쟁시장의 공평성과 공정성이 결여

(3) 새로운 시기의 현대물류 발전

- 허난성정부가 「허난성현대물류업발전계획(2010-2015년)」을 발표하고, 중원경제구가 국가급경제구로 격상되었으며, 정저우국제물류센터를 조성해야 함
 - 물류업이 허난성의 전략적 신흥산업중 하나(서비스업중 유일)
 - 산업물류 발전을 추진하여 거대시장공간 개척
- 현대물류 발전방향은 '집약화'와 '전문화'
- 현대물류 발전의 새로운 변화
 - 수요다원화가 시장규모와 수준에 영향을 줌
 - 생산자서비스도 시장수요변화에 주력해야 비로소 새로운 발전기회가 창출됨
 - 물류기업도 제조업, 상거래업, 농업 등 최신발전과 규율에 관심을 가져야 함

(4) 최근 물류부문의 핫이슈

- 운송시장구조 변화 : 수운, 철도 등 간선운송비중 제고
- 도로운송이 통합시기에 돌입 : 대형기업이 경쟁력을 갖고, 정보망이 도로시장을 통합하며, 첨단시장수요가 급속하게 증대
- 전문물류의 발전 급속화 : 전문물류의 거대공간화, 물류기업이 전문화로 전환

(5) 한·중물류협력의 발전현황과 기회

- 한중물류협력 현황
 - 19차 한중해운회담
 - 한중일항만국장회담(10년 이상 지속)
 - 2006년부터 매년 한중일물류장관회담 실시
 - 3대 협력목표 : 무장애통관물류체계 건립, 녹색물류체계 구축, 물류의 안전성과 효율 확보

○ 물류협력의 발전기회

- 한·중 양국의 협력 확대에 따라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경제성장극이 형성될 것이며 지역 내부의 물류수요도 급증할 것임
- 한·중의 국제물류통로가 개통되고 동북아지역의 제조업 및 국제무역 등의 발전에 따라 국제물류수요가 급증되면서 한·중 양국의 물류기반시설 건설에 기회를 제공할 것임
- 허난성 정저우시는 신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국제물류의 중심거점도시로서 중부지구의 내륙물류 발전과 중앙아시아 국제물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

(6) 한·중물류발전을 위한 제언

- 표준화·규범화·국제화된 물류체계 구축, 양국 물류자원·물류요소통합 강화로 국제물류서비스능력과 수준을 격상
- 한·중물류협력발전은 경제발전수준의 차이성, 산업발전상의 호혜성, 물류협력의 필요성, 협력방식의 다양성, 협력영역의 광범위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주도로 물류투자 및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
 - 다단계, 다경로의 연계협력기제 건립
 - 한·중 양국의 물류기반시설의 연계 및 협력
 - 양국의 중요물류발전전략의 상호통보와 교류

3) 금융업 관점에서 본 허난성진출 한국기업의 문제점

- 진출한 기업의 규모가 작음
 - 규모가 작고 근무환경이 좋지 않음
- 기업의 수가 적고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음
 - 중국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움
- 기술력이 높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임
 - 은행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기업의 발전속도가 느림



7. 창사 한·중 정책협의회

- 일시 : 2012. 7. 26(목) 15:30 ~ 18:30
- 장소 : 중국 후난성 창사시 KOTRA 창사무역관 회의실
- 발표자 : 리우마우쑹(刘茂松) 후난사범대학교 교수
 인상동(尹向东) 후난성사회과학원 재무경제연구소 소장
 저우민(周敏) 후난상학원 교수
 차우홍젠(曹虹剑) 후난사범대학교 부교수
- 참석자 : 이문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 김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
 김 흠 국토연구원 연구원
 서종원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
 이영기 KOTRA 창사관장 등

□ 토론주제

- 금융위기시기 이후의 후난성 경제발전 추세·모순과 대책

- 산업단지에 의한 후난성 공업화의 쾌속발전
- 후난성 교통운송·물류업의 발전

□ 주요 논의내용

1) 금융위기시기 이후의 후난성 경제발전 추세·모순과 대책

- 금융위기시기의 세계경제의 모순은 수요창출 부족으로 집약되는데, 세계화와 정보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저탄소녹색발전추세추세를 집중시켜야 함
 - 2011년, 후난성의 GDP는 1조9,635억위엔(353조원)으로 중국전역의 9위를 차지
 - 산업구조는 1차:2차:3차가 2005년 17:39:44에서 2011년 14:47:39로 2차산업위주로 고도화되고, 공업증가액 GDP비중이 41%로서 성장속도가 중국전체의 7위
- 후난성은 이미 공업사회에 진입하였으며, 12·5기간동안 공업화중기로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공업화후기 전환단계로 진입하기 시작
 - 2011년 기계, 석유화학, 식품, 야금, 비철금속, 경공업, 건재의 7대산업의 주영업수익이 1,000억위엔(18조원)을 초과하여 전년도의 2배로 증가
 - 중웬도시군이 대폭 발전하여 경제성장극을 기본적으로 형성
- 현재 후난성의 경제발전은 자원, 자본, 기술, 제도의 병목현상에 접어듦
 - 후난성의 경제성장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발전방식이 초기단계에 머물러있어 낮은 부가가치와 높은 환경오염으로 저탄소녹색발전수요가 증대됨
- 따라서, 후난성은 현재의 총량증대모형에서 구조혁신증대모형으로 전환하여 집약화·균집화·집중화된 경제발전전략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음

2) 산업단지에 의한 후난성 공업화의 쾌속발전

- 성급이상 산업단지의 발전현황(2010년)
 - 총량규모가 강화되고 전체능력 증강 : 규모이상기업 3,137개소로서 2009년대비 808개소가 증가되고, 그중 대기업이 33개소로 성전체 대기업의 54%를 차지
 - 투자유치가 증가하고 경제성장 증강 : 78개 성급이상 산업단지의 고정자산투자

액이 1,804억위엔(32조원)으로서 40%가 성장

- 기술혁신 가속화되어 기업활력 제고 : 산업단지내 규모이상공업의 신제품생산액이 1,476억위엔(27조원)으로 46%가 성장하여 성전체평균보다 4%p가 높음

○ 선진산업단지발전의 주요특징(2010년)

- 총량규모 거대 : 15개 성급이상산업단지의 총수입이 성전체산업단지 총수입의 62%를 차지
- 성장추세 양호 : 15개 성급이상산업단지 총수입이 51% 성장하여 성전체평균수준보다 2%p 높음
- 산업집적 현저 : 신형공업화평가에서 15개 성급이상산업단지의 집적효과 현저

○ 산업단지 발전에 존재하는 문제점

- 지역간 불균형발전 초래 : 산업단지수가 창사(6개), 상탄(2), 주저우(1), 창더(2), 첸저우(2), 위에양(1), 이양(1)의 7개 도시에 집중
- 공업구조의 특화 필요 : 단지내 규모이상공업의 중공업증가액이 성전역 규모이상공업증가액의 73%로서 중공업에 치우쳐 있음
- 산업단지 경제규모가 너무 적음 : 규모이상공업증가액 100억위엔을 초과하는 단지는 4개로서 성전체단지의 5%에 불과

○ 산업단지 발전 시사점

- 과학적인 산업단지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합리적 배치 유도
- 산업단지건설 강화로 산업집적과 군집발전 추진
- 정부서비스를 강화하여 산업단지의 발전활력 장려

3) 후난성 교통운송·물류업의 발전

(1) 후난성 교통물류산업의 고속성장

- 2011년까지, 후난성 주요도로 총연장이 232,200km로 2010년보다 1.8% 증가
 - 모든 향·진과 행정촌을 도로로 연결

- 3중2회 철도망을 구성하는 후난성 철도총연장이 3,693km
- 후난성의 수운통로는 총 11,968km로 중국전체에서 3위를 차지
- 후난성은 국제공항 1개(창사)와 지선공항 4개(창더, 화이화, 융저우, 장자제)가 있음
- 웬통택배사(圆通快递)는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민간택배회사로서 종업원이 매년 120%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, 순펑택배사(顺丰快递)의 종업원도 2010년의 700명에서 현재의 2500명으로 증가

(2) 후난성 교통물류산업의 미래구도

- 창주탄양형사회핵심발전구(창사, 주저우, 샹탄)
- 후난남부지구(湘南)산업승계·이전시범구(융저우, 형양, 첸저우)
- 환둥팅호(环洞庭湖)경제권(창사, 위에양, 창더, 이양)
- 우링산지구(武陵山区)경제협력구(사오양, 화이화, 러우디, 장자제, 샹시자치주)



8. 우한 한·중 정책협의회

- 일시 : 2012. 7. 27(금). 15:30 ~ 18:30
- 장소 : 중국 우한시 KOTRA 우한무역관 회의실
- 발표자: 양옌린(杨艳琳) 우한대학교 교수
양후타오(杨虎涛) 중난재경정법대학교 교수
- 참석자: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
김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
김 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
서종원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
장상해 KOTRA 무한관장 등

□ 토론주제

- 후베이성의 거시경제동향과 주요산업
- 후베이성 교통물류업의 발전현황과 미래전망

□ 주요 논의내용

1) 후베이성의 경제동향과 주요산업

(1) 후베이성 경제발전목표

- 후베이성 “3화”의 조화로운 발전
 - 농업현대화, 신형산업화, 도시화
- 혁신적인 후베이성 건설
 - 동력의 근본, 발전의 근원
- 법제화된 후베이성 건설
 - 투명하고 밝은 법제환경 조성
- 문화화된 후베이성 건설
 - 도약발전을 달성하는 정신적 고지 구축

- 행복한 후베이성 건설
 - 8자경(8字经) 실현

(2) 후베이성 산업발전 주요목표

- 2016년에 GDP 3조위엔(540조원) 돌파
- 후베이성 특색을 지닌 농업현대화 실현
 - 2015년에 농산품가공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의 2배에 이룸
- 2015년에 건강식품과 유기농산물의 비중을 30%로 증가

(3) 우한시 경제발전전략 : 4기지 1거점

- 선진제조업기지 건설
 - 장비제조업의 첨단기술화를 통하여, 즉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통하여 후베이성의 공업발전 도모
- 우수농산품가공기지 건설
 - 창강의 수(水), 후베이의 식량, 징저우 및 초나라지역의 맛을 특색으로 하는 농산품 우수브랜드 조성
- 첨단기술산업기지 건설
 - 차세대정보기술, 첨단장비제조, 신소재, 바이오, 에너지절감친환경, 신에너지, 신에너지자동차 등 7대 산업을 발전시킴
- 현대서비스업기지 건설
 - 1개의 현대서비스업핵심구, 2개의 지역서비스업중심구, 3개의 생산자서비스기능벨트 조성
- 종합교통거점 건설

2) 후베이성 교통물류업의 발전현황과 미래전망

(1) 후베이성 교통물류의 특징

- 중국의 중요한 정보통신거점
 - 중국통신망의 8종8형 간선광통신망 중에서 징광(京广), 한위(汉渝), 한닝(汉

宁) 등 5개가 우한시를 관통

- 후베이성 차량용 GPS시스템 시범운영 중
- 2010년에 후베이는 물류정보공유기반을 도입하여 택배, 용달 등 화물운송용 응용프로그램을 보급

(2) 후베이성 교통물류의 문제점

- 물류관리체계 개선이 필요
- 물류거점 건설 부족
- 물류시장의 육성역량 부족
- 운송방법의 통합이 필요
- 물류정보화서비스수준이 낮음



9. 정책적 시사점

- 중부지구에는 동부연해지구에 비해 한국기업의 수가 현저하게 적고 한·중 서로의 교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한국과 중부지구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교류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
- 중부 지구는 인구가 밀집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교통이 발달하는 등 산업 발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이 지역에 대한 미지로 인해 대부분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. 이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